

45년만에 펼쳐진 5월 일기장, 상흔 치유의 여정을 떠나다

리뷰 -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

‘오월 정신’ 미래세대 가치로 승화
관객과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주먹밥 퍼포먼스, 대동정신 되새겨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군홧발 아래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신군부는 그들을 ‘폭도’라 불렀고, 계엄군의 총칼 앞에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졌다. 긴 세월 진실을 향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마침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자들은 열사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광주는 누군가의 가슴에 여전히 진행형이다. 남겨진 이들에게 5월은 끝나지 않은 시간,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아 있다.

5·18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뮤지컬이 되어 무대에 올랐다.

문화예술단체 소리공장은 지난 24일 광주 북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 앙코르 공연을 선보였다. 조영권 감독, 이선영 연출. 이 작품은 2018년 초연 이후 리뉴얼을 거쳐 현재까지 공연을 이어오며, 지역 관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나는 평생 애비없는 자식으로, 그리고 빨갱이 자식으로 고생만 하고 살았다고.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릴 정말 사랑했는지. 나는, 우리는 버림 받았어.”

작품은 5·18 당시 아버지를 잃은 한 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비극 이후 상처만 남은 고향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지난 24일 5·18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이 펼쳐졌다. 배우들이 커튼콜에서 인사하는 모습.

광주를 외면하며 살아온 그녀는 45년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일기장을 마주하게 된다. 유가족으로서 긴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온 딸은 그 기록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아버지와 딸, 두 인물의 서사가 교차하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역사적 상흔과 치유의 여정을 그려냈다.

연출을 맡은 이선영 소리공장 대표는 “저는 1979년 5월생인데, 아버지가 제가 한 살 되던 해 5·18이 발생해 돌아진도 찍지 못한 채 지하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며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보고 들은 경험들을 이번 작품의 스토리에 녹여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은 광주의 상처이자 자부심”이라며 “시간이 흐르며 젊은 세대가 이 역사를 점점 더 모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음악으로 극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딸대로 극은 전반적으로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과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소리공장의 창작곡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넘버들도 극의 흐름을 지루하지 않게 이끈다. ‘I’m in love with you’ 같은 따뜻한 발라드부터, ‘영똥부자’처럼 유쾌한 곡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운다. 여기에 태권무와 샌드아트 등 다

양한 볼거리도 더해져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특히 학생 시위대가 부르는 합창 형식의 넘버 ‘Take Off’, ‘May be’ 등이 눈길을 끈다. 이 곡은 2018년 초연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연을 감명 깊게 관람한 오재동 씨가 이후 배우로 합류하면서 새롭게 추가됐다. 5·18 시위에 참여한 학생 배형철 역을 맡은 그는 직접 랩 가사를 쓰며 넘버를 완성해 공연의 에너지를 더했다.

극은 유쾌한 전개 속에서도 5·18의 정신을 놓치지 않는다. 무대 위에는 1980년과 2025년 광주의 모습이 영상으로 투사되며,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된다. 관객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주먹밥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도 더해져 5·18의 희생

과 대동정신을 현장감 있게 전한다.

하이라이트는 ‘선혈에 보답하리라’ 장면이다. 계엄군의 총에 쓰러졌던 시민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일부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5·18의 기억을 되새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연을 준비하며 광주 출신 청년 배우들이 5·18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단순히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날의 인물에 진심으로 몰입해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시선을 공연에 반영하고, 오월 정신을 미래 세대의 가치로 승화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유쾌하고 아름다운...광주시립발레단 ‘코펠리아’ 서울 무대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작 선정
31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봄날의 인형극처럼 유쾌하고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이 낭만 희극발레의 고전 ‘코펠리아’를 서울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시립발레단이 지난해 제138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당시 ‘국내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작품을 완성도 높게 소화했다’는 평을 받으며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시립발레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코펠리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5 제15회 대한민국발레축제’에 초청됨에 따라 이뤄지는 특별 기획공연이다.

작품은 연금술에 몰두하는 괴짜 과학자 코펠리우스와 그의 기계 인형 코펠리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익살과 오해, 사랑의 소동을 담은 낭만 희극 발레다.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자동 인형이 발레의 언어로 형상화된 대표작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극적인 춤 구성, 연극적인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져 오랜 시간 사랑받은 명작이다.

또한 작품은 폴란드 민속무용인 마주르카, 헝가리 민속무용인 차르다시 등 민속무용을 처음으로



광주시립발레단의 ‘코펠리아’ 공연 장면.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발레에 도입한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많은 전막 발레 작품에서 ‘다베르티스랑’ (여중 장면)이 관습처럼 덧붙여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크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아가자기한 프랑스고전 발레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마음 장면은 극에 유쾌한 리듬을 더하고, 인물 간의 감정선을 유머와 몸짓

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관객의 몰입을 이끈다.

재안무 및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은 “코펠리아는 화려한 춤의 향연 속에 유쾌한 이야기와 따뜻한 감성이 깃든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발레”라며 “관객들에게 한 편의 동화 같은 무대, 그리고 마음을 환기하는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김경민 작가, 30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화가는 본질적으로 그리
는 일을 업으로 한다. 그린
다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
를 전제로 한다. 일필휘지
로 대상을 묘사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 끊임없는
반복과 덧칠의 과정이 수
반된다.

어떤 대상을 그리다 보
면 그 대상이 그리워질 수
도 있겠다. 표현하고자 하
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없
다면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다 보
니 그리워지는 것인지, 그
리워서 그리는 것인지 무
엇이 선행인지 알 수 없지만 두 과정에는 분명 인
과관계가 있을 듯하다.

김경민 작가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를 주
제로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자연
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
다. ‘결실’, ‘만년사’, ‘향기’, ‘그림자’ 등의 작품
은 자연이 발하는 아름다움과 작가의 감성이 조
화롭게 투영돼 있다.

주제가 말해주듯 그림은 아련한 그리움의 정서
를 환기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맑은 자연
의 색감은 그 자체로 평안과 여유를 선사한다.

‘향기’는 이맘때 볼 수 있는 장미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탐스럽다가보다 오히려 수수
하게 느껴지는 것은 원경과 근경을 심미적으로
조율한 효과로 풀이된다. 진한 향기가 아닌 잔향



‘향기’

은 한동안 발걸음을 붙든다.

빨갳게 익은 감을 화폭에 담은 ‘결실’은 다가올
가을의 충만을 예감하게 한다. 늦봄의 시기에 늦
가을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리는 마음’ 때문일 것
이다. 언제고 결실로 돌아올 삶의 여정을 작가는
그리운 마음으로 펼쳐놓은 듯하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는 풍경과 자연의 모습을
초점화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었
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작가는 ‘ACC에 반한 스케치’전을 비
롯해 다수의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여했다. 광주
시 미술대전 특선(4회)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
주현진수재화회장, 광주예술공간연구소 운영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학동참사 4주기 추모극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

밝은밤, 6월 6~8일 씨어터연바람

2021년 6월 9일,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9명의 생
명을 앗아갔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 철거,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인재였지만, 4년이 흐른 지금도 제
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학동 참사 4주기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연극
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밝은밤이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오
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동구 씨어터연바람 무대에
올린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다시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추모극이다.

작품은 이승과 저승 사이, ‘여중’이라 불리는 경
계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죽은 이들이 잠시 머무
는 이곳에서 죽은 자들은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
간은 언제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해찬과 성철은 자신의 죽음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기억 속을 더듬으며 진실을 찾아간다. ‘감정
미스터리 판타지’를 표방하는 이 연극은 기억과 상



광주 학동참사 4주기 추모극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 공연 장면.

〈극단밝은밤 제공〉

처,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천천히 되짚는다.

무대는 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54번 시내버스를
모티브로 설계돼, 그날의 상처를 무대 위에 되살려
낸다. 청년 배우들은 지역의 아픔을 꺼내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무대 위 진심 어린 연기로 풀어낸
다.

극단 관계자는 “사고가 벌어진 지 4년이 지났지
만,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가

장 두렵다”며 “이번 공연이 기억의 물결을 다시 일
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밝은밤은 유가족들과의 약속에 따라 2027
년까지 추모 공연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2022년부터
매해 무대 위에서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있다. 이
번 작품은 지난해 선보인 ‘땀달아 무너진 세상’에
이은 네 번째 추모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 디지털 창작 역량강화 과정 6월10일까지 모집

첨단 기술을 매개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은 디지털 창작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ACC 역
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희망자는 6월 10일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올해 과정은 ‘엔리얼 엔진 VFX 워크숍: 실
시간으로 그리는 물·불·빛·파괴의 시각예술’ (7월
17~27일).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형 콘텐츠 제작
등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구현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번 워크숍은 고급 VFX(시각효과) 기술을 필
요로 하는 예술가, 창작자가 대상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게임, 영화 등에서 사용

되는 그래픽 도구인 ‘엔리얼 엔진’의 모션 연출을
비롯해 파티클 효과(불꽃, 연기, 눈 등 입자 표
현), 유체 효과(물 흐름과 액체 움직임의 시뮬레
이션), 파괴 효과(유리 깨짐이나 벽 붕괴 등의 장
면 연출) 등을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이다. 완성된 작품은 ACC 하늘
마당 미디어큐브와 오는 9월 공개 예정인 ACC
미디어월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신진
창작자, 예술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
다”며 “ACC는 향후에도 예술가들의 디지털 융
합 역량을 강화 및 창작의 확장을 견인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